

韓國의 크리스마스 썰 夜話 20

— 전지의 입수가 힘들었던 썰 —

(1977—1979년도 발행분)

이창성/크리스마스 썰 동호인, 수집가

1977년

1. 도 안



야생조류 10종류를 사실풍의 회화로 그렸으며, 1973년부터 <대한민국> 대신에 <결핵협회>라는 글이 들어 있는 평판 4도색 인쇄의 아름다운 썰이다.

복십자 옆에 <20>이라는 판매가 숫자가 주의하지 않으면 보일락말락 하게 인쇄되어 있다. 발행수가 각 115천매로서 총 1,150천매이다. 썰의 발행수는 우표의 발행수와 달리 사용제로서 회수되는 예가 극히 적으니 수집가 손에 보존되어 있는 것 이외는 입수의 길이 없다. 전지로서 입수가 힘들 뿐 아니라 낱장으로서도 입수가 약간 힘든 썰이다.

조류 10종의 선택은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조류에 한정하였는데, 종류를 보면 <피꼬리, 후투티, 황오리, 청호반새, 회색머리아비, 까막딱따구리, 알락해오라비, 황새, 수리부엉이, 밀화부리>이며, 도안자는 오동환 씨이다.

2. 전 지 (10×5=50매)

전지구성이 상발천공, 하발천공의 두 가지가 단식천공 11½로서 상문사인쇄 소리는 민간업체에서 제조되었다.

전지의 변지 좌측상부에는 <내가 산 크리스마스 썰 결핵을 없앤다>라는 호소문이 적색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좌측 하부에는 <CHRISTMAS SEAL 1977>라는 글이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되어 있다.

오른쪽 상부에는 도안자 오동환이라고 하늘색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인쇄소는 오른쪽 하부에서 상부로 가로쓰기로 한글로서 인쇄되어 있고, 하부에는 흑색으로 <대한결핵협회>라고 인쇄되어 있다.

이 썰은 변지에는 명시가 없으나 자연 보호시리즈의 1집으로 발행된 듯 하다.

3. 판촉봉투



썰 10매를 동봉하여 판매하기도 하고 증정하기도 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판촉 봉투는 수집가들에게 수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한시 되어 있는 것이 아쉽다.

대한결핵협회에서 썰을 발행하게 되어서 1957년부터 제조하게 된 판촉봉투의 완전수집은 오히려 썰보다 힘든 실정이다. 83×235mm의 가로형 사무용 봉투와 같은 규격으로 만들어진 이 판촉봉투는 하늘색과 적색의 두가지 색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봉투의 이면에는 적색과 하늘색으로 결핵의 발자취라고 하여 협조를 호소하고 있다. 항결핵의 업적을 연대별로 1961년부터 1976년까지 나열하고 있는 점은 매우 특이하다.

4. 기타 관련자료

어떻게 된 연유인지 소형시이트, 복십자엽서의 발행이 없는 것이 아쉽다. 포스터는 인쇄되어 썰의 홍보를 하고 있을 듯하나 필자는 미입수이니 매우 단순한 썰이라고 할 수 있겠다.

5. 각종 자료 (DATA)

구분	내용	비고
----	----	----

발행년도	1977년	썰 이외의
도안내용	자연보호시리즈<1> (천연기념물조류)	부대물 없음
종 수	10종	
도 안 자	오 동 환	
인 면	22×32mm	
천 공	단식점공 11½	
쇄 색	4도	
판 식	평판	
전지구성	10×5=50매	
판매가액	20원	
인 쇄 소	상문사인쇄소	
발행매수	각 115천매 (총 1,150천매)	
판매실적	100% 매진	

1978년

1. 도 안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꽃을 묘사한 회화조의 그림이며 매우 화려한 도안으로서 자연보호시리즈 제2집으로 발행되었다. 도안에서 액면이 삭제되었고 인면크기, 천공 등은 1977년 것과 동일하며 인쇄소도 동일하다.

도안의 종류는 <무궁화, 철쭉, 군자란, 자목련, 붓꽃, 모란, 수련, 도라지, 국화, 동백>의 10종류이며, 도안이 좋아서인지 도안자가 우표도안의 제1인자 인 강 박 씨인 탓인지 혹은 발행수가

적어서인지 여러가지의 원인이 복합되어 이 싼은 전지를 입수하기 힘든는 싼중의 하나이며, 필자는 1984년에 고 김성필 씨의 호의로서 겨우 입수할 수 있었으나 입수치 못하고 우표상을 수소문하고 다녔을 때는 낱장도 입수할 수 없어서 싼은 발생수만 보고 입수가 용이하다 힘들다는 것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통감하였다.

2. 전 지 (10×5=50매)

싼 낱장으로 보는 것과 10종을 한 Block으로서 보는 것과 전지로서 보는 것의 느낌이 다르다. 꽃을 주제로한 까닭에 주로 적색 계통의 화려한 색채로 되어 보는 이의 느낌이 편이한 것이다.

번지에 인쇄된 문구는 1977년과 동일하나 번지 좌측에 상부에서 하부로 가로 쓰기로 <자연보호씨리지 (II)>라는 하늘색의 글이 보여서 과거의 <자연보호씨리즈 (I)>을 찾아 봤으나 발견치 못하였으므로 1977년의 조류 도안의 싼이 바로 <자연보호씨리즈 (I)>에 해당되는 싼인듯 하다.

이 싼이 발행되었을 때는 집사람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대리 발송할 시절이라 우체국에서 싼을 구입하고 있었는데 구입하려고 하였을 때가 늦었는지 전지로는 입수치 못하고 꽃의 종류 10종만 수 집품으로 두고 추가로 더 구입하려 우체국에 갔을 때는 이미 매진되어 구입을 못하였다고 하니 이 싼은 매우 인기가 좋은 싼에 속하는 것 같다.

1980년에 대한결핵협회 복십자부인봉거의 매진되어 재고가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에서 1953년부터 1980년까지의 싼 실물을 첨부하여 매괄하였으나 1977년과 1978년의 싼은 재채한 싼이 붙어 있어서 매우 아쉬움을 금치못했던 기억이 새롭다. 또한 1980년 이후의 싼 수집품에는 다른 연도의 것도 재채된 것을 천공을 시공치않고 붙여 놓고 있는 것이 많으니 1,000만 단위의 발행량의 것은

3. 싼과 관련자료의 발행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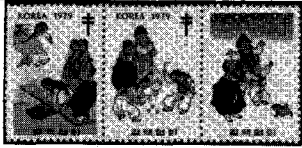
소형시이트, 복십자엽서의 발행은 없고 판촉봉투는 제작된 듯하나 필자의 미입수로 기술할 수 없는 것이 매우 아쉬운 일이다.

4. 각종 자료 (DATA)

구 분	내 용	비 고
발행년도	1978년	싼 이외의
도안내용	자연보호씨리즈<2> (자생꽃)	부대물 없음
종 수	10종	
도 안 자 인 면	강 박 22×32mm	
천 공	단식점공 11½	
쇄 색	4도	
판 식	평판	
전지구성	10×5=50매	
판매가액	20원	
인 쇄 소	상문사인쇄소	
발행매수	각115천매 (총1,150천매)	
판매실적	94%	

1979년

1. 도 안



우리나라의 민속놀이 10종을 약간 유모스런 만화풍을 풍기면서 사실적으로 묘사한 회화로서 표현한 독특한 도안이다.

도안은 <연날리기, 제기차기, 농악, 그네뛰기, 씨름, 매미잡기, 장고춤, 널뛰기, 팽이치기, 오뎅이>로서 도안을 바라보고 있으니 흥겨운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듯 하며, 음악의 박자소리까지가 화면에서 스며 나오는듯 하다. 매미잡기만 예외로 하고 도안에 흰부분이 많은 것도 특이하며, 도안가는 이서지 씨이다. 발행수가 1,150천매에서 2,875천매로 비약적으로 2배반이나 증가한 점이 특이하다.

2. 전 지 (10×5=50매)

50매 전지 한가지이고 변지상의 여러 문구는 1978년 것과 동일하다. 단 좌측의 변지 상에는 상부에서 하부로 가로쓰기로 <어린이 민속놀이>라고 하늘색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도안자의 이름 이서지가 오른쪽 상부에 하늘색으로 인쇄되어 있다.

3. 판촉봉투



제기차기 썰을 2.5배로 확대한 것을 암녹색으로 그림 110×225mm의 가로형

사무용 봉투로서 <결핵을 없애기 위한, 1979년도, 썰 모금운동>이라고 3단으로 나누어 쓴 것이 특색이다. 이면은 1977년과 동일한 결핵의 발자취 라는 글을 녹색과 적색으로 인쇄한 봉투이다.

4. 썰과 관련된 인쇄물

소형시이트, 복잡자엽서 등의 발행이 없었음.

5. 각종 자료 (DATA)

구 분	내 용	비 고
발행년도	1979년	
도안내용	고유민속놀이	
도안자	이 서 지	
종 수	10종	
인 면	22×32mm	
천 공	점공 단식 11¼	
쇄 색	4도	
판 식	평 판	
전지구성	10×5=50매	
판매가액	20원	
인 쇄 소	상문사인쇄소	
발행매수	각 287,500매 (총 2,875천매)	
판매실적	92%	

참고문헌

- 1). GREEN WORLD SEAL CATALOGUE, The christmas seal and Charity stamp society, Chicago, U. S. A. 1983, by Henry Irwin
- 2). 대한결핵협회 30년사, (1983 - 대한결핵협회 발행)
- 3). 원색한국우표도감, (1991-우문관 발행) 卩